

Henry David Thoreau와 힌두 사상

강 연 속*

〈 차 례 〉

1. 초절주의와 힌두 사상
2. Thoreau와 힌두 경전의 만남
3. Thoreau가 읽은 힌두 경전
4. 빛은 동방에서
5. 결론

1. 초절주의와 힌두 사상

헨리 데이비드 씨로우¹⁾(Henry David Thoreau: 1817~62)는 많은 힌두 경전들을 읽었다. 그래서 그의 주요 작품에 힌두 사상이 반영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씨로우가 힌두 경전들을 접하게 되는 배경과 그가 읽은 힌두 경전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우선 동양 경전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토양이 되는 미국의 초절주의와 힌두 경전과의 관련성을 논한다. 그리고 인도에서 유럽을 거쳐서 뉴잉글랜드로 전해진 경전들을 어디서 어떻게 씨로우가 접하게 되는지를 파악한다. 다음으로 초절주의자인 씨로우가 읽은 힌두 경전들을 고찰한다. 힌두 경전에 심취한 씨로우는 동양을 정신적인 빛을 주는 곳으로 인식했다. "사실상 나는

*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강사

1) 그의 성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Thoro라고 발음하지만 정확하지 않은 것이다. 콩크드의 시인들은 furrow와 비슷하게 Thurrow(thu'rou)라고 말한다. Thurrow라고 부르는 것은 N. Hawthorne의 일기에서 그가 처음 만나서 식사를 한 것을 일기에 쓸 때 철자를 어떻게 쓰는지 모르고 "Mr. Thorow(sic) dined with us yesterday." (N. Hawthorne, American Notebook, September 1st, 1842)에서 Thorow라고 소리나는대로 쓴 것이 이를 증명해 준다. 그리고 Thoreau도 그의 1852년 2월 15일의 '일기'에서 그의 조상들에 대한 다음의 언급에서도 그의 성에 대한 것을 알 수 있다. "Perhaps I am descended from that Northman named 'Thorer the Dog-footed.' Thorer Hund, 'he was the most powerful man in the North'" (J 4, 350) (Stern 3). 따라서 우리말의 정확한 발음은 씨로우라고 처음절을 올리며 발음하는 것이 옳다.

요기라고도 할 수 있다”(even I am a yogi, *Letters* 54-55)라는 표현에서 씨로우가 힌두 경전에 심취해서 실재로 경전들이 가르치는 바대로 살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은 요가(yoga)를 충실히 행하는 자신의 모습과 요가의 사적인 의미에 대해서 친구 블레이크(H. G. O. Blake)에게 쓴 편지 내용의 일부이다. 그리고 과학자 협회에서 어떤 분야의 과학에 관심이 있는지를 써서 보내달라는 편지에 그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을 써보낸 후에 그의 일기에 “사실은 내가 신비주의자, 초절주의자이며 게다가 자연 철학자(a mystic, a transcendentalist, and a natural philosopher)이고, 지금 그것에 대해 생각해보니, 내가 초절주의자라고 즉시 말했어야만 했다”(J 5, 469-70)라고 쓰고 있다. 요기와 초절주의자로서의 씨로우는 힌두 사상과 초절주의 믿음을 지니고 있다.

뉴잉글랜드의 르네상스²⁾(New England Renaissance)는 1820년 경에 시작해서 1830년에서 1850년 사이 최고조에 달했다가 미국 남북 전쟁(1861-65)후에 점차 소멸되기 시작한다. 인간 본성의 가치를 강조하는 새로운 낭만 정신이 이 르네상스 시기에 태동하게 된다. 인간은 원래가 타락된 본성을 지니고 있고 정해진 운명에 따라 살아야 하는 존재로, 저항할 수 없는 자비로운 신의 은총에 의해 선택적으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숙명론적인 예정설을 기초로 하는 켈빈주의

2) 르네상스(Renaissance)란 원래 '재생'을 뜻하는 말인데, 보다 구체적인 역사적 용어로는 14세기 무렵부터 16세기에 걸쳐 일어난 그리스, 로마 고전문화의 부흥, 그리고 그에 따른 인간 중심적인 문화의 탄생을 의미하여 왔다.…… 그리스 철학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문학작품의 영역을 넘어 고전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이에 관한 인식이 깊어감에 따라 중세와는 다른 새로운 인간관과 자연관이 싹트게 되었다. 이로서 종교적이고 내세적이었던 중세와는 달리 현세를 즐기고, 있는 그대로의 자연의 아름다움에 도취하며, 풍부한 인간성과 개성을 마음껏 발전시키고 발휘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민석홍 138-43).

14세기의 이탈리아의 르네상스가 고전을 그 자체로서 바라보고 연구하려는 새로운 태도를 낳은 것과 마찬가지로, 뉴잉글랜드의 르네상스에서 피어난 초절주의의 믿음이 칸트의 사상과 플라톤주의, 스웨덴보리주의와 동양 경전 등의 고전에 기초를 두고 있었고 그에 대한 활발한 토론과 연구가 있었다. 초절주의가 종교적으로 자유사상을 취한 일신주의에서 파생되어 나왔기 때문에 엄격한 청교주의의 종교적이고 내세적인 면에서 탈피했다. 초절주의는 문학적으로 청교주의의 억제하는 이념에서 해방되어 낭만주의와 개인주의를 옹호해서 인간의 존엄성과 창조적으로 표현할 자유를 요청한 점등은 르네상스 정신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Boller xix-xx, Mott 224-29).

(Calvinism)³⁾와는 다른 새로운 정신인 것이다. 뉴잉글랜드의 르네상스가 꽃피기 이전의 초기 청교주의(Puritanism)는 기독교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하려 하고 교회의 순수성(purity of church)을 지향하는 순수한 종교적인 의미가 강했지만 후기 청교주의에 와서는 정신적인 가치보다는 착한 행위로 인한 번영과 돈을 많이 번다는 상업적인 의미로 변모하면서 2, 3세대에 와서는 종교적인 확신을 못하기에 이르른다.

이 때 프랑스 자유주의자들(liberals)의 근본적인 관념인 인간의 자연권과 종교와 도덕, 정치의 영역에서 자유롭게 생각하고 견해를 표현할 권리등이 뉴잉글랜드로 들어왔다. 따라서 무신론적인 철학도 들어오게 되었다. 더불어 보스턴(Boston)에서 1750년 매휴(Jonathan Mayhew)가 인간은 신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구원될 수 있다는 설교가 행해졌다(Tylor 141-42). 인간이 스스로가 구원될 수 있다는 생각과 더불어 신의 중개자(divine mediator)인 예수(Christ)나 성령(Holy Spirit)을 강조하는 삼위일체설(Trinity) 대신에 신은 만물에 퍼져 있고 내 자신도 그 속에 일부라는 신의 개념을 가르쳤으며, 정교(Orthodoxy)와 자유주의(Liberalism) 사이에 갈등은 있었지만 자유주의자들, 즉 일신주의자(unitarians)들이 당연히 우세했다. 정교의 기독교 삼위일체설 대신에, 매사추세츠의 지도자들은 절대적인 일신(the strict unity of God)에 대해 설교하고 있는 자신들을 발견하게 된다(Tylor 142). 일신론자들은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예수를 단순히 위대한 인간으로 보며 인간을 죄인으로 생각지 않고 오히려 인간 속에 신성이 내재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의 신앙과 선행에 의하여 자기 자신의 구제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본다. 일신주의(Unitarianism)에서는 인간을 자기 자신의 신성에 의해 완전함에 이를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생각한다고 볼 수 있다(Horton 113-14). 에머슨은 하버드대학 졸업식의 우등생 학생회(Phi Beta Kappa)연설에서 각 개인의 직관적 통찰

3) 청교주의의 기초가 되는 칼빈주의의 다섯가지 믿음으로는 전체적인 타락(Total Depravity), 무조건적 선택(Unlimited Reprobation), 제한된 속죄(Limited Atonement), 불가항력적 은총(Irresistible Grace), 그리고 성자의 인내(Perseverance of the Saints)이다.

력을 강조해서 범신론적인 철학성을 띠는 「미국의 학자」(“The American Scholar”)를 강연한다. 이 강연으로 인해 많은 논쟁이 있었고 일신론 목사이기도 한 파커(Theodore Parker)는 예수의 기적을 부인하며 예수가 통찰하신 진리는 인간의 본성에 내재되어 있어 각자의 사람들이 자신을 깨달아 이를 스스로 찾음으로써 파악할 수 있으며 따라서 예수보다 더 위대한 제 2의, 제 3의 예수가 나타날지도 모르며 기독교의 형식, 의식, 교리, 신조, 심지어 교회까지도 덧없는 일시성에 속하는 것이고 교회란 선행을 도모하는 한 단체에 불과하다고 말함으로써 정통 기독교 목사들의 분노를 사게 한다(Boller 13-21). 일신주의는 이런 바탕에서 성장했고 일신주의자들의 영향으로 1816년 현재 하버드 신학 대학의 기초가 된 하버드 신학교(Harvard Divinity School)가 설립됐다. 이어서 1825년 미국 일신주의 협회(American Unitarian Association)가 형성되었고 채닝(William Ellery Channing)은 『캘빈주의에 대한 도덕적 논의』(*The Moral Argument against Calvinism*, 1820)에서 “인간의 타락과 신의 일방적 은총을 주장하는 교의는 캘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신의 자비와 공정에 대해 모순’된다며 결국 인간이 마지막으로 의지할 곳은 자기 자신의 정신이다”(Spiller 37)라고 말함으로써 진실된 정신적인 힘으로 성숙해 나아가게 된다. 채닝은 에머슨이나 파커와는 달리 신약에 나온 기적의 역사성을 계속하여 확실히 믿었고 초절주의자들의 개인적 영감에 대한 믿음을 질시했으며 그들이 범신론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반대하였다. 하지만 파커의 기독교 진리의 불변성에 대한 강조로 그의 마음이 고양되어 에머슨, 리플리, 파커 등의 초절주의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죽을 때까지 유지한다(Boller 21).

한편 뉴잉글랜드에서 태동한 낭만 정신은 여러 세대동안 세속적인 시나 소설에 대해서는 안 좋게 생각하는 청교주의의 억제하던 이념에서 해방되었을 때 유럽의 낭만주의를 한 세대 안에 급속히 들여오게 되면서 활짝 꽃피게 된다(Taylor 142-44). 이렇게 뉴잉글랜드로 들어온 유럽의 낭만주의를 아먼드(Barton St. Armand)는 영국 혹은 미국의 낭만 의식(Romantic Senses)으로 압축해서 자아, 장소, 과거, 자연, 그리고 초자연(Self, Place, Past, Nature, and the

Supernatural) 등으로 분류하고 초자연에서 음울한 낭만주의(Dark Romanticism)는 고딕(the Gothic)이고, 밝은 낭만주의(Bright Romanticism)는 숭고한 것(the Sublime)으로 구분한다. 따라서 낭만주의자들은 14세기 유럽 르네상스의 인문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아를 강조하는 개인주의자들이며, 인간의 의식에서 예술이 갖는 의미를 강조하고 중세를 동경했으며 멀리 동떨어진 문화인 그 신비한 종교가 있는 동양을 그리워했다. 실제로 자연에 대한 동경과 철저한 자연신비주의는 낭만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에 속한다. 낭만주의자들은 자연에서 신적 자아를 체험한 르네상스 철학자들과 신플라톤 학자인 플로티누스의 사상도 받아들이고 자연을 유일한 큰 자아, 세계 영혼 혹은 세계 정신같은 표현도 썼다(가아더 503-08).

뉴잉글랜드의 르네상스 정신인 일신주의와 낭만주의 그리고 초절주의는 서로 서로 맞물려 있으면서 유사성과 차이점을 보이며 풍요로운 문학적 전통을 형성한다. 일신주의 사제들은 일신주의라는 말에 경멸적인 의미가 있어서 대신에 “자유주의적인 기독교”(liberal Christianity, Mott 234)라는 말로 표현하기를 더 좋아했으며 이들 중 몇은 또한 주요한 초절주의자이기도 하다. 초절주의의 선언서(manifesto)라 할 수 있는 「자연」(Nature)을 쓴 에머슨은 보스턴과 하버드의 착실한 일신주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여 초년기에 사회적 보수주의에 젖어서 그가 교회를 떠난 뒤에도 그런 경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에머슨은 유복한 상인과 결탁한 교육받은 사람의 리더십을 강조했고, 기성 체도에 대한 존경, 제한된 개인의 권리, 사유재산의 인정, 부유층 인사들의 박애주의적 경영 등을 이상으로 삼았다(Boller 103). 따라서 기존의 관습이나 지식을 초월하여 우주의 법칙을 통찰하려는 그의 철학은 관념적인 생각일 뿐 그의 사상과 일치하는 초월적인 삶을 현실적으로 산 것은 아니었으며 “내적인 본성의 절대적인 주권”(absolute sovereignty of the inward nature, Mott 234)과 같은 인간 속에 있는 신성을 설교로서 가르쳤다. 초절주의를 대표하는 써로우는 그것을 아는데 그치지 않고 신성하게 살려고 동서양의 경전의 도움을 받아 가며 신성을 확인하고 느끼고 실제 삶에 적용하려고 했다. 그리고 일신주의는 인간이 신성하다는 것을 신학(theology)의

관점에서 파악한 반면 초절주의자들의 출발점은 인간의 본성 그 자체이다. 즉 그 자신이 본성을 갖고 닮으면 그 자신도 예수나 부처처럼 될 수 있는 신성한 본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초절주의자들은 인간 영혼뿐만 아니라 자연에도 신성이 내재한다고 확신했다. 따라서 초절주의자들은 이런 신성을 지닌 인간이 자연과 조화롭게 고귀한 삶을 살 것을 권한다.

낭만주의와 초절주의는 “주관성(Subjectivity), 자연에 대한 사랑, 단순하고 평범한 것에 대한 사랑”(Pillai 1)에 있어서는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자연에 대한 사랑은 같지만 낭만주의자들은 “자연에 있어서 감각적”(sensuous)인 반면 초절주의자들은 직접 발로 걸어다니고 손으로 탐구하며 그의 몸과 마음으로 자신도 자연의 일부라는 확신이 있다. 낭만주의자들에게 시속에 나타나는 자아(poetic self)는 그들의 실제 자아(real self)와는 다르다. 하지만 초절주의자들의 글과 연설, 행동 등은 그 자신의 삶을 바로 표현한 것이다. 초절주의자들은 단 하나의 종교에 관계하지 않는다. 하지만 낭만주의자들은 기독교 신학(Christian theology)의 배경에서 글을 썼다. 초절주의자들의 관점은 철저한 낙관주의인 반면 낭만주의자들의 몇몇은 비판적이지는 않지만 완전히 낙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필라이(Pillai)는 하고 있다(1985: 2-5).

뉴잉글랜드의 르네상스에서 피어난 초절주의는 14세기의 유럽의 르네상스와 강한 유사성을 보이지만 그때와는 달리 초절주의자들은 그들 사회의 악을 제거하기 위하여 인간 존재와 본성에 대한 실체를 추구하기 위해 독일의 사상가들, 칸트, 피히테, 셸링과 영국의 사상가들, 코울리지, 칼라일과 더불어 프랑스의 자유주의적인 사상과 고대 희랍 철학과 동양 경전 등 서양 문명의 장벽을 넘어 아시아의 풍부한 유산을 흡수했다. 즉 비기독교적인(non-Christian)가치들 뿐만 아니라 비유럽적인(non-European) 가치들도 받아들였다.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 문학뿐만 아니라 힌두와 중국의 경전들도 풍부하게 받아들여지게 된다. 그들은 정신적으로 자유로웠고, 국제화되었고 보편화되었다. 그들은 인간의 천부적인 위대함과 정신 개발의 무한한 영역을 강조했으며, 이러한 것과 관련된 지식들을 세계 도처에서 받아들였다. 써로우는 “초절주의

의 예술적인 가능성(artistic possibilities)을 가장 잘 실현시킨 『월든』⁴⁾(*Walden*, Mott 226)에서 초절주의 정신적인 분위기를 잘 나타내고 있다.

우리가 고전이라고 부르는 문화적 유산과, 고전보다도 훨씬 더 역사가 깊고 더 고전적이지만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여러 나라의 경전들이 쌓이게 될 때, 또 바티칸 궁전 같은 곳들이 베다 경전들, 조로아스터교의 경전들, 기독교의 성경과 같은 경전들과 호머, 단테, 셰익스피어 같은 작가들의 문학작품이 함께 어우러져 채워질 때, 그리고 앞으로 올 모든 세기가 각자가 거둔 전리품을 세계의 광장에 차례로 쌓아 놓을 때 그 시대는 진실로 풍요의 시대가 될 것이다. 이러한 문화적 유산의 더미를 덮고서만이 인간은 마침내 하늘에 오를 희망을 갖게 될 것이다.

That age will be rich indeed when those relics, which we call classics, and the still older and more than classic but even less known scriptures of the nations, shall have still further accumulated, when the Vaticans shall be filled with Vedas and Zendavestas and Bibles, with Homers and Dantes and Shakespeares, and all the centuries to come shall have successively deposited their trophied in the forum of the world. By such a pile we may hope to scale heaven at last. (103-04)

미국의 초절주의는 1830년대와 1840년대에 뉴잉글랜드 일신주의내에서 일어난 신학적으로 혁신적이고 문학적으로 실험적인 움직임이다. 초절주의는 후에 미국의 종교적, 교육적, 문학적, 정치적 문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에머슨, 풀러(M. Fuller), 파커, 써로우등은 주요 초절주의자들이며 고무적인 행사(galvanizing events)와 정기 간행물, 크럽과 이상적인 사회(Brook Farm과 Fruitlands)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의 초절주의는 체계화된 믿음이나, 공식적인 철학, 혹은 견고한 사회적 운동이 아니었다. 따라서 초절주의가 어떤 것이라라고 명확하게 정의하기가 어렵고 초절주의자들의 작품들과 초

4) self-discovery, self-cultivation, self-liberation, 그리고 self-expression에 대한 책이라고도 하는 *Walden*은 1990년 MLA에서 대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조사해본 결과 19세기 미국 문학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작품이 되었다. (Schneider 1).

절주의와 관련된 제도적인 양식도 다양한 모습을 나타낸다.

신학적으로 “초월적인”(transcendent)이라는 말은 이 세계 위에 있는 혹은 세계와는 별개의 신성에 대한 언급이다. 하지만 에머슨이나 쉐로우와 대부분의 주요 미국 초절주의자들에게 신은 이 세계의 창조물에 내재해 있다는 것이다. 미국적 상황에서는 “초월적인”이라는 말은 인식론적인(epistemological) 문제에 더 밀접하게 관련된다. 지식의 토대와 진리를 이해하는 것을 강조하며 ‘우리는 어떻게 실체를 알 것인가?’라는 문제에 관한 것이다. 에머슨은 「초월주의자」(“The Transcendentalist”, 1841)의 강연에서 “현재의 이상주의는 직관적인 사고의 부류에 속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칸트가 언급한 말인 “transcendental”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서술한다(1960: 198). 초절주의는 가장 효과적으로 그 ‘시대의 정신’을 나타낸다.

1936년에 초절주의 선언서라 할 수 있는 에머슨이 「자연」(“Nature”)이 출판되었고 브론슨(O. Brownson)의 『기독교, 사회, 교회에 대한 새로운 견해』(*New Views of Christianity, Society, and the Church*), 리플리의 『종교 철학에 대한 강론』(*Discourses on the Philosophy of Religion*), 그리고 알코트(A. B. Alcott)의 『대화』(*Conversations*) 등이 출판되었다. 이들은 획일적이고 제도화된 방식으로 진리에 접근하려는 기존의 방식에 도전하고, 제도화된 권위 혹은 성서의 기적을 역사적으로 입증하는 것 등을 기반으로 한 종교적인 확신에 대해 논쟁을 펼쳤다. 정신을 청정하게 하면 즉시 신성을 감지할 수 있다(Divinity is at hand, immediately available to the pure in spirit)는 것이 초절주의자들의 믿음이다. 따라서 신의 계시라는 말 대신에 직관, 자아에 의한 영혼(Soul by Self)⁵⁾, 대령에 의한 신(God by the Over-Soul), 그리고 자연(Nature)이라는 말을 쓰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Mott 224-29).

초절주의는 1836년에 일신주의 목사들을 포함한 일단의 사람들이 보스턴에 있는 조오지 리플리(George Ripley)의 집에서 독일 철학과 그 당시의 사회 문제를 토론하기 위해 첫 모임을 가졌다. 이 초절주의

5) Self는 self와 비교해서 우주적인이라는 의미가 되며 Soul by Self는 우주에 내재하는 영혼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클럽은 간헐적으로 만나서 어떤 공통된 관심사와 삶에 대한 공통된 입장을 표명하고『다이얼』(*The Dial*, 1840-44)까지 출판하며 나중에 써로우는 편집(*Ethnical Scriptures*)을 맡아 힌두와 중국 경서에서 인용한 글귀들을 바로 실어 출판하는데 그 주요한 것들은 「마누의 법전」(1843년 1월), 「공자의 말씀」(“*Sayings of Confucius*” 1843년 4월), 「사서」(“*The Chinese Four Books*” 1843년 10월), 「부처의 설교」(1844년 1월) 등이다. 에머슨은 다이얼의 후원자였고 이 간행물이 계속 살아남게 하려고 에머슨은 당시의 돈으로 \$300을 쓰기까지 한다. 다이얼 후에 초절주의 간행물은 남북전쟁 후에『래디컬』(*The Radical*)에서 또한 동양 성서에 대한 글을 실었으며, 마지막 초절주의 간행물인『인덱스』(*The Index*)에서 1880-1881년에 동양 성서에 대한 글을 실게 된다. 초기 초절주의는 칼빈주의 이론과의 갈등이 있었으며 후기의 초절주의는 과학의 도전과 종교에 대해 비교 연구하는 것과 직면하게 된다(Mueller 52-56).

초절주의자들은 종교, 철학, 신비주의, 그리고 윤리를 결합한 “모든 살아 있는 것들은 서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하다. 지식의 근원으로서 통찰력은 경험보다 더 강하다”라는 믿음이 있었다. 이런 믿음은 독일의 초절주의⁶⁾, 플라톤주의(Platonism) 신플라톤주의⁷⁾(Neoplatonism), 인도와 중국의 경전들, 그리고 스웨덴보리(Emanuel Swedenborg)와 뵘메(Jakob Bohme)같은 신비주의자들의 작품들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Webster 1128). 칸트(Immanuel Kant)의『순수 이성 비판』(*Critique of Pure Reason*)은 낭만적이고 직관적인 철학으로 칸트는 인간 이성은 감각으로 인지할 수 있는 현상만을 다루기 때문에 우리 인간본성이 원하는 신, 자유, 불멸과 같은 면에서는 이성은 힘을 발휘하지 못함으로 신념을 통해 접근한다. 칸트

6) 독일의 초절주의인 선험철학은 영어로 *metemprics*이라고 표기한다. *metemprics*는 *transcendental philosophy*를 말하며 Kant, Fichte, Hegel 등이 있다. *metempsychosis*가 영혼의 재생, 윤회를 뜻하며 즉 독일의 초절주의 철학은 현실을 살면서 경험하는 것 이전에 인간의 영혼의 윤회로 인간속에 내재하는 그 무엇이 있다는 이론이다.

7) Neo-Platonist인 Plotinus는 영혼을 거울과 빛에 비유한다. 인도의 육파 철학중의 하나인 Samkhya 철학에서도 꼭 같은 비유를 든다. 따라서 Neo-Platonist 이론과 Samkhya 철학과의 약간의 관련성이 있을 수도 있다(Nakamura 278).

후에 유럽 철학자들의 목적은 칸트가 가정한 현상 너머의 세계를 조사하는 것이다. 초현상 세계를 생각하기 위해 그들은 이성이나 과학에 의지하지 않고 직관에 의존했다. 따라서 그들은 신비주의자들이며 초절주의자들도 신비주의자들이다(Tylor 144-46).

초절주의자들에 의하면 엄격한 습관, 강압적인 관료주의, 우리를 무비판적으로 몰아넣는 이데올로기 너머에 피조물의 근본적인 기적과 장엄과 신비가 놓여 있다는 것이다. 즉 물질과의 접촉으로 더럽혀지지 않는 신성에서 진실에 대한 영감을 얻기를 희망했다(Boller 209). 초절주의자들은 자아에 내재하는 신성을 믿었으며, 궁극적인 진실의 근원으로서 마음의 세계를 추구했다(Smith 129). 써로우 자신도 1853년 3월 5일에 쓴 『일기』에서 과학자 협회에서 어떤 과학의 분야를 좋아하는지에 대한 물음의 편지에 관심 없음을 나타내면서 자신은 초절주의자라는 표현을 한다. 초절주의는 청교주의의 인간의 타락한 본성, 미리 운명이 정해진 삶, 피할 수 없는 운명 등에 대한 강력한 반발이었다. 대신에 초절주의자들은 인간의 신성, 자유, 그리고 자비로운 섭리 밑에서 삶의 기쁨을 선포했다. 따라서 그들은 인도 철학에 심취했다. 왜냐하면 인간의 신성한 본성, 인간 자신의 무한한 잠재력, 그리고 인간을 신성과 동일시하는 완성을 향한 능력 등이 인도 철학에서 강조했기 때문이다(Pillai 8-9).

초절주의 믿음과 힌두사상은 유사함을 지니고 있다. 첫째, 정신을 청정하게 하면 즉시 신성을 감지할 수 있다는 인간 내면의 신성에 대한 강조는 초절주의의 믿음이며 힌두 사상이 뜻하는 것이다. 둘째, 초절주의의 직관이나 통찰력에 대한 강조는 무한한 정신적 잠재력을 지닌 인간 의식 세계로 인해서 깨달음을 얻었을 때 통찰력을 지니게 된다는 힌두 사상과 통한다. 셋째, 초절주의에서 자연은 신이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신성한 것이며 자연에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은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은 범신론적인 속성을 지닌 힌두 사상이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초절주의 믿음이 힌두 사상과 유사하기 때문에 초절주의자인 써로우는 힌두사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필즈(Fields)는 “그(써로우)의 본 성질은 항상 사색적인 사람의 그것이었다”(1981: 62)라고 표현했으며 이런 사색적인 삶에 동양의 성인들이

수년간 사색으로 이루어 논 경서들은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는 것처럼 강한 흡수력을 갖게 된 것이다. “동양의 경전들은 씨로우가 추구하고 이상으로 생각하는 정신적인 삶에 가장 훌륭한 재료가 되었다”(Magic 176)라고 앤더슨은 언급한다. 사색적인 씨로우에게 오랜 세월 동안 깊은 명상으로 이루어 놓은 힌두 철학과 문학은 자연이 그에게 말하는 소리이며 변하지 않은 진실을 전해주는 것이다.

2. 씨로우와 힌두 경전의 만남

서양 사람들이 인도에 대해서 연구한 것은 알렉산더 대왕(327-325 BC)의 인도 원정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근원을 추적할 수 있지만 18세기 후반까지만 해도 유럽인들은 인도의 철학서를 연구하지 않았다. 그리스 혹은 라틴작품에서 간략하게 아는 게 전부였다. 1700년 영국이 인도를 점령하고 동인도 회사를 세워서 거기서 일하는 윌킨스(Charles Wilkins, 1749~1836)와 존즈(William Jones, 1746~94) 등이 산스크리트를 배워서 인도의 경전들을 번역했는데 그들이 번역을 한 주 목적은 인도를 다스리려면 그들의 법과 철학을 알기 위해서였지만 그 속에 담긴 심오함에 매료당하게 된다. 존즈경이 최초의 회장으로 1784년에 『벵골의 아시아 연구회』(*Asiatic Society of Bengal*)가 세워져서 인도 연구의 발판을 마련했다. 1788년에 벵골의 아시아 연구회에서는 『아시아 연구』(*Asiatic Researches*)라는 잡지를 출판하게 된다. 이 잡지는 서방 세계에 인도에 관한 정보들을 번역을 통하여 알리는 매체가 된다. 존즈는 씨로우가 애송한 칼리다사의 『사쿰달라』(*Sakuntala*, 1789), 자야데바의 『기타 고빈다』(*Gita Govinda*, 1792) 그리고 『마누의 법전』등을 번역했는데 『마누의 법전』은 1794년에 『힌두 법의 원리』(*Institute of Hindu Law*)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윌킨스는 『바가바드 기타』(1785)와 1841년에 어머니와 씨로우에게 알려진 전통적인 도덕 이야기 전집인 『히토파데사』(*Hitopadesa*, 1787)를 번역했다. 콜브루크(Colebrooke)는 『힌두 교도들의 종교와 철학에 대한 수필』(*Essays on the Religion and Philosophy of the Hindus*, 1815)과 씨로우가 1851년 세밀하게 연

12 인문학연구 제4집

구한 상키아(Samkhya)인도 철학 체계에 대한 해설서인 번역서『상키아 카리카』(Samkhya Karikas, 1837)를 집필했다. 1845년 콩코드에서 널리 읽혀진 윌슨이 번역한 칼리다사의 『메가 두타』(Megha-duta, 1813)와 『비슈누 푸라나』(Visnu Purana, 1840) 등이 있다(Basham 4-6).

해스팅즈(Warren Hastings)는 인도에 있는 영국 정부 장교를 지휘하는 일을 맡고 있는데, 힌두 회교도(Hindu Muslim)문화에 깊은 공감을 갖고 있었다. 존슨은 해스팅즈 밑에서 판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해스팅즈의 권유로 인도 연구를 시작했다. 『콩코드와 메리맥강에서의 일주일』(A Week on the Concord and Merrimack Rivers, 1849)에서 해스팅즈가 인도 경전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는 것을 써로우는 다음의 글에서 보여준다.

동인도 회사 사장에게 『바가바드 기타』의 번역을 추천하는 그의 분별있는 편지에서, 해스팅즈는 원전(인도 경서)은 개념, 논법, 언어선택의 숭고함에 있어서 그 어느 것과도 필적할 수 없을 것이라고 표명한다. 그래서 인도 철학자들이 쓴 웅장한 글들은 인도에서 영국의 통치가 끝난 후 오랫동안 그 힘을 잃지 않을 것이며, 한 때 부와 권력에 내주었던 원천들이 기억으로 사라질 때까지 인도 철학자들이 쓴 글들은 살아남을 것이다.

Warren Hastings, in his sensible letter recommending the translation of this book to the Chairman of the East India Company, declares the original to be "of a sublimity of conception, reasoning, and diction, almost unequalled," and that the writings of the Indian philosophers "will survive when the British dominion in India shall have long ceased to exist, and when the sources which it once yielded to wealth and power are lost to remembrance." (137)

스스로가 신비주의자, 초절주의자, 자연 철학자이며 요기라고 생각한 써로우가 인도 철학에 흥미를 갖게 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며 그가 인도 경서들을 접하게 되는 것은 여러 기회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에머슨과 하버드 대학 도서관과 인연이 크다. 그는 하버드 대학을 1837년 8월 30일에 졸업하는데 에머슨은 바로 다음날 대학 뜰에서 「미국

의 학자」를 강연한다. 하버드 대학의 졸업생으로서 써로우는 1849년 9월 17일 당시의 총장, 스파크스(Jared Sparks)에게 문학을 직업으로 하는 써로우에게 책은 중요한 도구이지만 책들을 살 돈이 없으니 졸업생의 자격으로 하버드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다 볼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내용의 든 편지를 쓴다(Cameron, *Minerva* 466-67). 총장은 이 편지 밑에 “일 년”(Cameron, *Minerva* 479)이라고 연필로 써서 일년 단위로 빌려줄 것을 허락한다. 총장이 허락해줘서 일 년에 세 번이나 네 번 하버드 대학 도서관에서 그는 책을 빌려다가 많은 양의 독서를 하게 되는데 그가 도서관에서 빌린 책은 목록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인도 철학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읽는다. 써로우는 많게는 일 년에 여덟 번을 하버드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다가 보게 되는데 1850년에 그가 빌린 힌두 경전들은 다음과 같다. 『비슈누 프라나』(*The Vishnu Purana*), 『상키아 카리카』(*The Samkhya Karika*), 존즈(Jones)의 『테인머쓰에 의한 작가의 삶과 작품들』(*Works, With Life of the Author by Teignmouth*), 『사마 베다』(*Sama Veda*), 라마모하나 라야(Ramamohana Raya)의 『베다 귀절들의 번역』(*Trans. of Passages of the Veds*) 등이 그가 하버드 도서관에서 주로 빌린 책들이다(Cameron, *Companion* 289).

에머슨은 이미 앞서서 퀸시(Josiah Quincy) 총장에게 허락을 받고 하버드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다가 보고 있었다. 에머슨은 당시에 유명 인사가 되어 있었고 그의 집은 써로우와 같은 콩코드에 있었으며 써로우는 에머슨을 스승이며 친구로 생각했고 에머슨은 써로우를 아들이며 친구로 생각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에머슨이 일곱 살 때 죽은 그의 아버지 윌리엄 에머슨(William Emerson)은 목사로서 『월간 선집』(*The Monthly Anthology*)과 『보스턴 리뷰』(*Boston Review*)를 편집했으며 여기서 1805년 존즈(Jones)의 『사쿰달라』(*Sacotala*) 번역물을 실어 힌두 경전을 소개하기도 했는데 그가 남긴 서재에는 많은 힌두 경전들이 보존되어 있어서 에머슨이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었다(Fields: 55).

하버드 대학에서뿐만 아니라 에머슨의 서재에서 그리고 에머슨의 추천으로 써로우는 동양 경전에 차츰차츰 접하게 된다. 대학을 다니면서

쓴 쉘로우의 수필과 공책, 최초의 일기 등으로 미루어 봐서 1841년 에머슨의 집에 살려가기전부터 동양 문학과 경전들을 알게 되었다고 폴(Sherman Paul)은 『미국의 기슭』(*The Shores of America*)에서 언급한다(1958: 69). 하지만 하딩(Walter Harding)은 쉘로우가 1841년 4월 26일에 에머슨의 가족의 한 사람으로 들어가서 1843년까지 그의 집안 일을 도우고 에머슨의 서재를 자유로이 이용하게 되면서부터 동양 문학과 대부분의 동양 경전들을 알고 접하게 되었다고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에머슨의 서재에서 쉘로우는 동양서들에 특히 관심을 가졌으며 『비쉬누 사마의 히토파데스』와 『마누의 법전』과 같은 책을 아주 깊이 관심 갖고 읽었다. 그것이 쉘로우를 동양 문학에 접하게 한 계기이며 거기서 쉘로우는 서양 문학에서 보다도 동양 문학에서 그의 생각과 더 유사함을 느낄 수 있었으며 여러 해동안 그의 손에 닿는 거의 모든 책들을 읽었으며 영어가 아닌 불어나 독어로 된 책은 번역까지 하면서 읽었다.

In Emerson's library he(Thoreau) was particularly attracted to the Oriental books and read deeply in such volumes as the Heetopades of Veeshnoo-Sarma and the Laws of Manu. It was his introduction to Oriental literature and therein he found a philosophy of life far more akin to his own than any he was able to discover in Occidental literature. For many years he was to read every book he could lay his hands on, even at times doing his own translating from French and German, when the books were not available in English. (1967: 130)

쉘로우의 1841년 5월 31일 월요일의 『일기』에서 『마누의 법전』(*Laws of Manu*)을 읽고 난 후의 감흥을 “그 제목은-『마누의 법전』- 켈루카의 주석과 함께-마치 힌더스탄의 평야를 방해받지 않고 스쳐 가는 그런 광대한 소리로 나에게 다가온다”(J 1, 311)라고 언급하고 있어 하딩의 견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인도의 넓은 평야를 방해받는 것 없이 시원히 지나가는 소리처럼 마음 후련한 소리였다고 하고 있다. 마누(Manu)의 법은 우리 모두의 법이며 정신적으로 깨어나기 전의 상태의 지혜로운 소리, “태양이 떠오르기 전의 시간과 같은 책”(the book as an hour before sunrise, J 1, 311)이라며 깊은 감명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가 영향받은 주요한 인도 경전 중에서 월킨즈에 의해서 번역된 『바가바드 기타』(*The Bhagvat Geeta*, 1785)는 약 1845년 경에 콩코드에서 잘 알려지게 되었고, 써로우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읽는다. 써로우와 더불어 대부분의 초절주의자들은 에머슨을 통해서 동양 서적을 접하게 되지만 앤더슨(Anderson)은 써로우가 특히 다른 초절주의자들보다도 더 깊은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 써로우와 에머슨 둘 모두의 지적인 배경을 연구한 권위자에 따르면 써로우는 어떤 다른 초절주의자들보다도 동양 경전을 더 깊이 읽었다고 했다(Anderson: 152). 써로우는 다른 목사들이나 설교자들처럼 중국이나 힌두 경전에서 얻은 글귀를 자신의 강연에 성서적인 문구로서 사용했다고 일기. “나는 중국과 힌두 경전들에서 뽑은 구절들을 나의 논제로서 사용하는데 보탬다”(J 2, 192)라고 쓴다. 다른 초절주의자들은 힌두 경전들에서 주로 사색적이고 이론적인 것에 관심을 보인 반면 써로우만은 힌두 철학과 문학이 제시하는 삶을 실제로 살려고 했다고 곱터(Gupta)는 주장한다(1987: 41). 스타인(Stein)도 다른 초절주의자들은 심원한 힌두 철학과 문학이 글로 표현된 것을 취미 삼아 조금 관심을 가진 반면 써로우는 자신의 강연에서 말한 것이나 글로 쓴 것을 현실에 적용시켰다고 한다. 그는 힌두 철학과 문학에서 제시하는 그 말을 단지 삶의 철학으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생활 방식으로 하려고 시도한다(*Itinerary* XV).

써로우에게 힌두 성전들을 소개해 주기도 하고 자신이 직접 월킨즈가 번역한 『비쉬뉴 사마의 히토파데스』(*The Heetopades of Veeshnoo Sarma*, 1787)를 『다이얼』(July, 1842)에 인용하기도 한 에머슨(1803-82)은 19세기 중반에 콩코드에서 연구된 많은 책들 가운데 『바가바드 기타』가 가장 영향력이 있다고 1848년 10월 1일 그의 일기에 쓰고 있다.

나와 나의 친구(써로우)는 아주 많은 날들을 『바가바드 기타』에 은혜를 입었다. 그것은 책중의 최고의 책이다. 그 책은 사소하거나 가치 없는 것이 아니고, 커다랗고 진지하며 일관성이 있어, 우리를 괴로웠던 같은 문제들은 다른 시기와 지역에서 깊이 사색해서 결과적으로 해결한

옛 지성의 목소리를 마치 제국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과 같다

I owed-my friend and I owed-a magnificent day to the Bhagavat Geeta. It was the first of books; it was as if an empire spoke to us, nothing small or unworthy, but large, serene, consistent, the voice of an old intelligence which in another age and climate had pondered and thus disposed of the same questions which exercise us. (1982: 394)

3. 씨로우가 읽은 힌두 경전

씨로우는 힌두 서적에 1840년부터 1855년까지 진지하게 관심을 갖는다. 1840년 에머슨이 보스턴 학술 진흥 기관에서 빌린 존즈가 번역한 『마누의 법전』을 씨로우에게 빌려주었다. 계속해서 씨로우는 하버드 도서관과 에머슨의 서재에 있는 동양 경전들을 통독하며 깊은 관심을 갖는다. 그가 1845년 월든 호수로 가서 살 무렵에는 월킨즈가 번역한 『바가바드 기타』를 접하게 되고 그 곳에서 아침마다 이 책을 읽는다. 계속되는 10년간동안 월슨이 번역한 『비슈누 프라나』, 워드(William Ward)가 인도 철학의 여섯 체계에서 발췌한 것을 번역한 것, 로이(Rammohan Roy)가 『우파니사드』(*Upanishads*)를 일부 발췌한 것을 번역한 것과 콜부르크(Colebrooke)가 번역한 『삼키아 카리카』(*Samkhya Karikas*)등을 읽게 된다. 영어로 번역된 것 외에 랑그로이스(M. A. Langlois)가 프랑스어로 번역한 『하리반사』(*Harivansa*)를 씨로우는 일부분 번역하기도 했다. 크리스티(Christy)는 씨로우가 랑그로이스가 번역한 『하리반사』인 『일곱브라만의 환생』(*The Transmigration of the Seven Brahmins*)을 영어로 번역한 것에 대해, “그 이야기 자체 때문이라기보다는 그것이 포함하고 있는 요가 철학 때문에 더 그로 하여금 이 내용을 번역하게 했다”(1931: XVI)라고 쓰고 있다.

제스윈(Jeswine)도 씨로우가 읽은 힌두 경전과 문학서들을 분석했다. 1840년과 1854년의 기간 사이에 씨로우가 읽고 많은 문학적인 영향을 준 14권의 중요한 힌두 경전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마누의 법전』이 고독 속에서 명상에 잠기고 물질적, 정신적으로 청정한 삶을 위한 그의 노력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머레이(Murray)의 『영국 식민지

인도에 대한 역사적이고 묘사적인 설명』(*Historical and Descriptive Account of British India*)과 그의 또 다른 책인 『히토파데사』(*Hitopadesa*), 그리고 『바가바드 기타』와 『하리반사』, 가르시아 드 타시(Garcia de Tassy)의 『힌두와 힌더스탄의 역사』(*Histoire de la Litterature Hindoui et Hindoustani*), 힌두교의 주요한 철학 체계 중의 하나이며 그의 사색에 영향을 미친 『상키아 카리카』와 『비슈누 프라나』, 그리고 로이(Roy)가 번역한 『베다의 몇몇 주요한 책들의 번역』(*Translation of Several of the Principle Books of the Veds*), 그리고 나머지 네권은 『사마 베다의 삼히타』(*Samhita of the Sama Veda*), 『드라마』(*Drama*), 『사쿤달라』(*Sacontala*) 등이다.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인 『사쿤달라』는 써로우가 애독한 책이며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루어진 이 책의 구성은 『월든』의 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써로우는 이 책들을 아주 진지하고 체계적으로 공부하면서 읽고 일부 책은 번역까지 한다. 『콩코드 메리맥강에서의 일주일』에는 2-3쪽에 걸쳐서 『마누의 법전』과 『바가바드 기타』의 구절들을 인용하며 『월든』에도 많은 인용문들이 있다. 그가 읽은 이 책들 중에서도 『마누의 법전』, 『바가바드 기타』, 『상키아 카리카』가 써로우에게 가장 영향력이 있다고 하고 있다(Jeswine 28-29).

스타인(Stein)도 써로우가 읽거나 도서관에서 빌었거나 소유했던 그와 관련 있는 힌두와 불교문학의 목록을 조사했다. 방대한 양의 책을 크게 『베다』, 『서사시』, 『프라나』(*Purana*), 『카비야』(*Kavya*), 『카싸』(*Katha*), 『드라마』, 『문법』, 『달마사스트라와 스마르티』(*Dharmasastra and Smrti*), 『철학과 종교』, 『불교 신자』, 그리고 『지방어 교재』(*Vernacular Texts*) 등으로 분류해서 각각의 항목에 여러 권으로 이루어진 책을 10여편이 되게 나열(1967, *Bibliography* 52-56)하고 있어 써로우가 접한 많은 양의 동양서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1854년 영국 옥스퍼드에서 살고 있는 컬러먼델리(Cholomondeley)가 에머슨의 친구인 클러프(Arthur Hugh Clough)의 소개로 콩코드로 오게 된다. 에머슨의 집에서 써로우는 컬러먼델리를 알게 된다. 써

로우의 어머니가 숙박할 집을 갖고 있어서 그는 당분간 씨로우의 콩코드 집에 머물다가 크리미아 전쟁에 참전하려고 몇 주 후에 영국에 돌아간다. 1855년 켈러먼델리는 영국에서 씨로우에게 영어, 프랑스어, 라틴, 그리스어 그리고 산스크리트로 쓰여진 44권의 힌두 서적들을 보내 준다(Sharma 61). 그 선물을 받고 씨로우는 친구 다니엘 릭키트슨(Daniel Ricketson)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 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지금 나는 당신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고 싶다. 비록 당신이 특별히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말이다. 켈러먼델리는 완벽한 군인으로 크리미아 전투에 참전하기 위해 갔다. 그리고 그는 전쟁에서 만약 살아서 돌아온다면 영국 남부에 오두막집을 사서 나를 거기로 오도록 유혹하겠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전쟁에 참전하기 전에 21개의 귀한 작품(하나는 아홉권으로 되었고 모두 합쳐서 44권)인 소중한 선물을 사느라고 바빴고 채프만(Chapman)으로 하여금 나에게 부치도록 했다. 그 책들은 거이 전적으로 고대 힌두 문학과 관련되어 있고 그 중 어느 하나도 미국에서는 살 수가 없는 것이다. 나는 그 책들중의 많은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얼마나 그것들이 소중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다. 마치 아이가 탄생한 것과 같은 기쁨으로 이 소식을 당신에게 알리고 있다.

But I wish now above all to inform you, - though I suppose you will not be particularly interested, - that Cholomondely has gone to the Crimea, "a complete soldier", with a design, when he returns, if he ever returns, to buy a cottage in the South of England, and tempt me over; but that, before going, he busied himself in buying, and has caused to be forwarded to me by Chapman, a royal gift in the shape of twenty-one distinct works(one in nine volumes-forty-four volumes in all) almost exclusively relating to ancient Hindoo literature and scarcely one of them to be bought in America. I am familiar with many of them and know how to prize them. I send you information of this as I might of the birth of a child. (*Letters* 131)

씨로우는 이 책들을 자신이 직접 만든 상자에 평생 소중히 보관하다가 죽은 후에 그의 스승이며 친구인 에머슨과 알코트(Alcott)가 보관하게 된다. 그가 읽은 많은 힌두 성서 중에 『바가바드 기타』와 『마누의 법전』은 그의 삶과 철학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특히 윌든에 가지

고 간 윌킨즈가 번역한 『바가바드 기타』에 대해 밀러(B. S. Miller)가 쓴 「왜 헨리 데이비드 써로우는 바가바드 기타를 월든 호수에 가지고 갔나?」("Why did Henry David Thoreau take the *Bhagavad-Gita* to Walden Pond?")에서 『바가바드 기타』가 에머슨이나 써로우에게 매력을 끈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다.

물론 써로우나 에머슨에게 『바가바드 기타』가 지닌 매력은 그들의 작품의 단지 한가지 구성요소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것은 서양식 사고를 지닌 학생들을 당황하게 할 것같은 그런 구성요소이다. 힌두 문학의 이국적인 개념과 이미지를 자신들의 삶과 작품에 서서히 받아들인 수준에서 이해하려고 시도함으로써, 에머슨이나 써로우는 강하게 그들과 닮았다고 느낀 고대 인도의 성인들의 생각에서 참신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읽은 힌두 경서들은 18세기의 이성주의와 19세기 물질주의에 대한 비판을 하는 개념들을 제시했으며, 인간의 정신적인 힘을 표현하는 새로운 종류의 이미지나 신화와 개념들을 보여 주었다.

The fascination that the *Gita* held for Thoreau and Emerson is, of course, only one component of their work, but it is the component most likely to perplex students of Western thought. By attempting to penetrate the levels at which they deliberately incorporated the "exotic" concepts and images of Hindu literature into their life and work, one can gain fresh insights into their thought and the thought of the ancient Indian sages with whom they felt such strong affinities. The Asian texts that Thoreau and Emerson were reading presented ideas that strengthened their critique of eighteenth-century rationalism and nineteenth-century materialism, while providing a new set of images, myths, and concepts expressive of man's spiritual energy. (1986: 58)

이성이라기 보다는 통찰력에 대한 강조와 물질이 아니고 정신적인 삶 등에 중요성을 두는 힌두 사상이 초절주의와 잘 맞다는 것을 위의 예문에서 알 수 있다. 그리고 『바가바드 기타』에서 "구루(Kuru)의 정신적인 전투에서 그 자신을 알려고 노력하는 아르주너(Arjuna)의 영웅적인 투쟁을 하는 이미지"는 써로우로 하여금 『바가바드 기타』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게 했다(Miller, *Why* 61). 가장 순수한 자신(self)의 내부에 있는 아트만(atman)이 브라만(Brahman)과의 합일이 되는 경지에 이르는 과정에서 명상과 절제하는 삶, 행동은 하지만 그 행동에 집착하지 않고 결과나 보상을 바라지 않는 행위, “행동으로 인해서 나온 모든 결실을 포기하고 버리고 행동으로 인한 결실을 버리는 것은 명상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다. 그러한 포기를 한 후에는 바로 즉시 평화가 온다”(Nikhilananda 277-78)라는 『바가바드 기타』에서 제시하는 철학을 씨로우의 삶에 적용시켰다. 해리스(Harris)는 『바가바드 기타』의 철학 강연에서 최초의 요가 이론이 유희이나 악을 피해서 자제나 조용한 사색을 선호한 반면 “『바가바드 기타』의 요가 체계는 악과 직접적으로 대항하고 유희과 싸울 것을 명한다”(1883: 113)라고 하고 있다. 『바가바드 기타』는 악과 유희에 바로 대항한 상태에서 초월을 추구하며, 인도의 방대한 서사시중 하나인 『마하바라타』(Mahabarata)속에 삽화로서 삽입되어 있으며 1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여섯 장은 요가를 실제로 행하고 그 결과에 대한 요가 체계의 이론적인 견해를 제시한다. 다음 여섯 장은 최상의 정신(Supreme Spirit)의 본성과 그 속성과 세계와 인간에 대한 최상의 정신과의 관계를 다룬다. 마지막 여섯 장은 더 사색적인 견해 즉 힌두 철학과 문학과 비슷한 심리학 혹은 자연 철학의 체계를 제시한다고 해리스는 말하고 있다. 『바가바드 기타』의 철학으로해서 씨로우는 이처럼 미묘하고 세련된 종교이며 철학이 주는 매우 고귀하고 순수한 사상에서 인간이 정신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고 확신해서 “독자는 『바가바드 기타』 말고 어떠한 곳에서도 더 깨달음을 얻어 더 고귀하고 순수하고 드문 사상의 영역으로 인도될 수 없다”(Week 137)라고 한다. 씨로우는 『마누』, 『공자』, 『베다』, 『우파니샤드』등으로부터도 지혜를 얻었지만 『바가바드 기타』를 읽음으로써 그의 의식 속에 깊이 동양의 도덕적, 종교적, 철학적인 지혜가 뿌리를 내렸으며 “『바가바드 기타』를 읽고서 그는 새롭게 탄생하게 되었다”(1939: 199-03)라고 캔비는 언급한다.

『마누의 법전』 또한 씨로우에게 초기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끼친 책중의 하나이다. 『마누의 법전』을 읽음으로써 그는 채식주의, 장사를 피하는 것, 옷을 단순히 입으려는 것과 매일 매일 목욕하는 것 등

에 있어서 브라민(Brahmin)과 같은 삶을 영위하려고 노력했다. 브라민은 그의 이상이었던 것 같고 마누는 그로 하여금 그의 삶을 예술 작품과 같이 살도록 가르쳤다. 브라마(Brahma)와의 일치를 이루기 위해 가능한 한 청정한 상태가 되는 것에 그는 초점을 두면서(Jeswine 80). “아리아인은 다양한 종류의 금욕 생활을 행하면서, 『라하시아스(우파니사드)』와 더불어 『베다』전체를 공부해야 한다”(Laws of Manu 60)는 내용을 써로우는 실천했다. 실제로 써로우는 『마누의 법전』에서 말하는 『베다』를 공부하고 절제된 삶을 살기 위해 월든 호수에 갔다. 폴은 마누는 써로우에게 “성스러운 영감이 깃들인 이고 법을 만든 이”라고 한다. 써로우가 그 자신과 일치시키고 있는 최상의 인간인 브라민의 삶의 모습을 정교하게 법으로 만든것이다. 『마누의 법전』에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할지에 대한 기준을 파악했으며, “예언자로서의 시인의 개념과 일치하는 것으로서의 브라민은 써로우의 정신적인 영웅이 되었다”(1958: 71)고 폴은 언급한다. 따라서 『마누의 법전』과 『바가바드 기타』를 공부함으로 인해서 써로우는 그의 정신적인 영웅이된 브라민의 삶을 이상으로 삼았고 마누가 가리키는 바와 같이 삶을 예술 작품을 만드는 노력으로 살려고 했다. 월든 호수로 옮긴 육 주 후에 그의 일기에서 마누에서 제시하는 브라민(Brahmin)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가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다음으로 알 수 있다. “몸에가 아니라 확실히 진실인 마음에 전달하는 이 신성한 제안인, 고기를 먹지 않고 물건을 사거나 팔고 물물교환 하지 않고 기타 등등, 이런 훌륭한 지시 사항을 지킬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J 2, 175)라고 써로우는 적고 있다. 청정한 삶을 위해서 고기를 먹지 않으려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장사하는 것을 피하고, 아침의 목욕 등은 『마누의 법전』을 읽고 그의 생활에 적용시킨 것이다. 『마누의 법전』전편이 십이 장 2685 계송으로 이루어져 운문으로 씌어져 있다. 제 일 장은 우주의 창조로부터 시작하여 아리아족의 사회제도인 종성(caste)의 조직과 기능에 대하여 언급하며, 나아가 법전의 의의 및 내용을 요약한다. 제 이 장에서 제 육 장은 아리아족이 일생을 통해 시행해야 할 여러 가지 의식을 열거한다. 한 사람의 일생을 학습의 단계로 성장과 세상 지식을 배우는 범행자(brahmacarin), 결혼하여 자식을 기르고 가족

을 거느리며 가정생활의 의무를 수행하는 재가자(grhastha), 출가하여 수련을 시작하는 임서자(vanaprastha), 고도의 수행과 깨달음의 경지를 추구하는 수행자인 유행자(samnyasin)라는 네 개의 생활기로 분류하고 각각의 시기에 관한 의무를 설명한다. 제 칠 장에서는 왕법, 즉 제왕학, 행정, 군사, 외교 등을 서술하고, 제 팔 장과 제 구 장에서는 사법에 관한 규정을 18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제 10장에서는 카스트 제도의 명칭, 기원, 기능 등을 설명하고, 잡종 카스트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제 11장은 속죄법을, 제 12장은 윤회, 전생 및 해탈에 이르는 과정을 설명한다.

라그하반(Ellen M. Raghavan)과 우드(Barry Wood)가 쓴 『콩코드와 메리맥강에서의 일주일에서의 씨로우의 힌두 인용』에 따르면 약 마흔 일곱 개의 힌두 경전의 내용에 대한 언급이 있다. 이 중에서 서른 두 개가 『바가바드 기타』에 대한 것이고 여덟 개가 『마누의 법전』에 대한 언급이다(1979: 94-98). 앤더슨(Anderson)은 『콩코드와 메리맥강에서의 일주일』에는 당시의 독자들에게 힌두 이론을 호소력 있게 소개하려는 주석과 많은 인용문을 『바가바드 기타』에서 취한 반면 『월든』에서는 비유적이고 암시적으로 힌두 이론이 작품 전체에 걸쳐 스며들어 있다(1968: 88)고 한다. 그리고 필라이에 따르면 『월든』에서 세 개의 힌두 경전에 대한 언급이 있다(1985: 27). 인용문은 적지만 『콩코드와 메리맥강에서의 일주일』(1849)과 『월든』(1954) 이 두 책 사이의 오 년 기간동안 힌두교에 대한 안목과 초월적인 전통(transcendental inheritance)이 그의 사상에 자연스럽게 융화되어서 작품 전체에 걸쳐서 힌두 사상에 대한 흐름이 있다고 해도 무리가 아닐 것이라고 라그하반은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두 책사이의 5년 기간에 씨로우는 힌두적인 시각을 초월적인 재능과 완전히 융합을 해서 인용이 거의 불필요한 것 같다. 따라서 힌두적인 사상이 있는 학생은 『월든』에 있는 수 많은 문구나, 심지어 힌두 성서와 문학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는 곳에서도 힌두적인 속성을 느낄 수 있다.

In the five years between the two books Thoreau had so completely integrated his Hindu perspective with his transcendental inheritance that quotation hardly seemed

necessary. Thus the student of Indian thought can feel a distinctively Hindu quality coming through numerous passages in *Walden*, even where no specific Hindu references occur. (1979: 98)

썬로우 일기의 제일 처음 페이지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에머슨의 권유로 1837년부터 죽을 때까지 거의 매일 일기를 쓴다.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일기를 쓰고 있느냐?”(*J* 1, 5)라는 에머슨의 물음에 썬로우는 그의 맨 처음 일기를 쓴다고 1837년 10월 22일 일기에 적고 있다. 썬로우가 일기를 쓰는 것은 우주적인 정신인 신을 인식하려는 그의 노력이라고 “내가 일기를 매일 쓰는 이유는 신들을 위해서다. 일기는 우편요금 선불로 신들에게 매일 써 보내는 나의 편지이다.”(*J* 1, 259)라고 쓴다. 썬로우는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몇 달 뒤인 1837년부터 그가 죽기 몇 달 전인 1862년까지 전 시기에 걸쳐서 이십사년간 서른 아홉 권의 공책에 7,000페이지 이상이나 되는 방대한 양의 『일기』를 쓴다. 이 내용들이 그의 작품 『월든』, 『콩코드 메리맥 강에 서의 일주일』등을 쓸 때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일기』와 다른 작품 사이에 다소 겹치는 부분이 있으며 『일기』에도 많은 부분에서 힌두 경전의 내용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힌두 경전에 있어서 인간의 개념은 대단히 무한하고 숭고한다. 인간의 운명에 대한 더 고귀한 개념을 힌두 성서에서 말고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 인간은 마침내 “신”인 브라마 자체에 흡수된다. 실로 이 생애 있어서 인종의 특징은 브라마로 끝나는 일련의 단계의 시작일 뿐이다 …… 어떤 곳에서도 창조에 대한 이보다 더 위대한 개념은 없다. 그것은 꿈처럼 평화롭다. 세상이 소멸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창조는 아침과 저녁과 같은 그러한 시작이고 끝이다. 왜냐하면 신이 창조하는 방법은 폭력적이지 않다는 것을 그들은 배웠기 때문이다. 창조는 새벽이 되기 전에 귀뚜라미의 희미한 울음소리로 알려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깨움이였다.

In the Hindoo scripture the idea of man is quite illimitable and sublime—there is nowhere a loftier conception of his destiny—he is at length lost in Brahma himself—the divine male. Indeed the distinction of races in this life is only the commencement of a series of degrees which ends in

Brahma …… There is no grander conception of creation any where - It is peaceful as a dream-and so is the annihilation of the world- It is such a beginning and ending as the morning and evening.-for they had learned that God's methods are not violent. It was such an awakening as might have been heralded by the faint dreaming chirp of crickets before the dawn. (*J* 1, 324-325)

4. 빛은 동방에서

쉴로우스는 “빛은 동방에서 유래한다”(Ex oriente lux, *Week* 143)는 여전히 학자들의 좌우명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다. 왜냐하면 서양 세계는 동양으로부터 운명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모든 빛을 이끌어 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크리미아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 영국으로 돌아가서 킬러먼델리가 보낸 44권의 동양서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1855년 11월 8일에 쉴로우스가 쓴 편지에서, 동양의 빛이 서양에 전해 줄 것이라는 언급을 상징적으로 “지금 당신은 당신뒤 서쪽으로 비출 빛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 동, 동쪽, 빛의 근원인 쪽으로 갔다!”(*Correspondence* 398)라고 쓴다. 영국에서 보면 크리미아는 동쪽을 의미하며 동쪽은 태양이 떠오르는 곳인 동시에 그 태양이 발산하는 빛과 밝음이 있는 곳이 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산책』(*Walking*)에서 쉴로우스는 또 다시 “빛은 동방에서 결실은 서방에서”(Ex Oriente lux; ex Occidente FRUX, From the East light; from the West fruit, *Walking* 26)라는 구절을 인용한다.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라틴어로 표현한 이 구절에서 제시하는 바대로 그가 걸어가는 방향도 떠오르는 태양의 이미지와 일치하며 이 구절이 나타내는 것은 동양의 “정신적인 삶의 양식”과 서양의 “물질적인 삶의 양식”과의 차이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호크는 언급한다(1972: 25-27).

신의 입상으로부터 처음으로 베일의 한쪽을 들켰던 사람은 이집트 아니면 인도의 철학자였을 것이다. 그 떨리는 옷은 지금도 들쳐진 채로 있으며, 그 영광의 장면은 아직도 내 눈에 선하기만 하다. 왜냐하면 옛날에 것처럼 대담하게 베일을 들켰던 사람은 철학자의 내부에 있던 바

로 나 자신이었으며, 오늘 그 광경을 다시 그려보는 사람은 내속에 있는 옛 철학자이기 때문이다. 그 옷 위에는 아직도 먼지 하나 내려앉지 않았다. 신의 입상이 들쳐진 이래 아무런 시간도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고의 시간으로 승화시키는, 또는 시킬 수 있는 시간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아닌 것이다.

The oldest Egyptian or Hindoo philosopher raised a corner of the veil from the statue of the divinity; and still the trembling robe remains raised, and I gaze upon as fresh a glory as he did, since it was I in him that was then so bold, and it is he in me that now reviews the vision. No dust has settled on that robe; no time has elapsed since that divinity was revealed. That time which we really improve, or which is improvable, is neither past, present, nor future. (Walden 99)

『월든』의 「쿠루시의 예술가」에서 마침내 지팡이를 만들어냈을 때 시간은 환상에 불과하고 영원하고 무한한 브라만과 하나가 되듯이 신성을 감지했을 때에 시간과 공간, 너와 나의 차별이 없어지고 일체감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 “나는 히브리어 성서보다도 힌두, 중국 그리고 페르시아 경전들에 더 많이 친해 있다”(Week 71), “신약성서는 순수한 도덕성으로 주목할 만하지만, 힌두 경전들 중의 가장 훌륭한 것은 순수 지성”(Week 137)으로 주목할만하다고 하고 있다.

힌두인들은 헤브라이인들보다 종교에 있어서 더 진지하고 사색적이다. 힌두인들은 아마 더 순수하고 독립적이며 비개인적인 신에 대한 지식을 지니고 있다…… 힌두 철학자들이 어떤 숨겨진 주체에 고요하고 관대히 접근하고 논하는 모습은 놀랄 만하다. 내가 일부 발췌해서 읽은 『베다』의 내용은 더 숭고하고 빛나는 불빛과 같았다. 그 빛은 티끌도 없고 단순하고 우주적인 더 깨끗한 층을 통과한 더 고상한 곡선을 그린다. 별들의 먼 여름 하늘 층에서 사라진 후에 보름달처럼 그 빛은 나에게 떠오른다…… 하나의 현명한 문장은 배사추세츠주 보다 몇배나 가치가 있다. 『베다』는 신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한다.

The Hindoos are more serenely and thoughtfully religious than the Hebrews—they have perhaps a purer more independent and impersonal knowledge of God…… The calmness & gentleness with which the Hindoo philosophers

approach & discourse on forbidden themes is admirable. What extracts from the vedas I have read fall on me like the light of a higher & purer luminary which describes a loftier curve through a purer stratum-free from particulars-simple-universal- It rises on me like the full moon after the stars have come out wading through some far summer stratum of the sky One wise sentence is worth the state of Massachusettes, many times over. The Vedas contain a sensible account of God. (J 3. 61)

쉴로우스는 “동양철학은 현대인들이 열망하는 것보다 더 고귀한 주제에 쉽게 접근한다”(Week 137)라고 적 있다. 동양 철학자들은 행동과 명상에 각각 적당한 지위를 부여하고 후자에 완전한 정의를 둘 때 서양의 철학자들은 명상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고 쉴로우스는 말한다. 쉴로우스는 좋은 책을 읽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월킨즈에 의해서 번역된 “『바가바드 기타』를 읽어라”(Week 142)고 하며, “그 책은 서양인인 미국인들에 의해서 조차 존경심을 가지고 읽혀질 가치가 있다”(Week 142)라 한다. 지적인 히브류인도 자신들의 성서와 비슷한 도덕적인 웅장함과 숭고함이 그 책에 있다는 것을 알고서 기뻐할 것이라고 한다. 쉴로우스가 “접한 많은 고전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책중의 하나는 『마누의 법전』이다”(Week 147)라고 한다. 『마누의 법전』에 대해 쉴로우스는 『콩코드와 메리맥강에서의 일주일』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태초에 브라마의 아들 혹은 손자이며, 최초로 창조된 인간인 마누에 의해서 집대성됐다고 힌두인들은 믿고 있다. 브라마는 마누에게 100,000시행을 가르쳤고 마누는 지금 번역된 바로 그 말을 원시 세계에 설명했다. 마누가 언제 살았던 사람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마누의 법전』은 힌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며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힌두교의 가르침에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고 있다.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연속적인 축소의 과정을 거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더 낮은 하늘(lower heaven)의 신들과 일단의 천상의 음악가들은 최초의 법전을 연구하는데 관여했다. 많은 주석과 평이 명상과 사색으로 단련된 나이든 철학자들인 무니(Munis)들에 의해 더해지고 그들의 책들이 우리 앞에 총체적인 뜻으로 『데르마 사스

트라』(Dherma Sastra) 혹은 『법의 주요부』(Body of Law)를 구성한다고 써로우는 설명하고 있다. 써로우는 “『컬루카 바타』(Culluca Bhatta)는 이러한 것들 중에 더 근대적인 것중의 하나였다”(Week 148)고 한다. 써로우는 우리에게 전해진 책중에 이것보다 더 장엄한 주장을 하는 책을 알지 못한다고 하며 이 책에 대한 그의 의견을 말한다.

그 책은 대단히 비개인적이고 진지해서 결코 공격적이거나 터무니 없는 것이 아니다 …… 그 책은 새벽시간에 진지한 통찰력을 지니고서 동양의 산 정상에서 언급되어 온 것 같다. 당신은 그 책을 읽으면 반드시 인도(the tableland of the Ghauts)에서와 같이 정신적으로 향상된다. 그 책은 사막의 바람, 갠지즈 강의 조수와 같은 시원한 리듬을 지니며 히말라야 산만큼이나 높은 진실을 품고 있다. 어조는 팽팽한 섬유와 같아서 이 늦은 시간까지조차도 신선하고 새로움을 전해주며 영어나 산스크리트어로 쓰여지든지 간에 고귀한 진실은 손상이 되지 않는다. 영속성이 있는 문장들은 별들처럼 아직도 먼곳에서 그 불빛을 발하고 있다. 그 불빛으로 이 낮은 세계는 불밝혀진다. 고귀한 몸짓과 성향을 지닌 이 책은 많은 말들을 할 필요가 없게 만든다.

it is so impersonal and sincere that it is never offensive nor ridiculous …… It seems to have been uttered from some eastern summit, with a sober morning prescience in the dawn of time, and you cannot read a sentence without being elevated as upon the tableland of the Ghauts. It has such a rhythm as the winds of the desert, such a tide as the Ganges, and is as superior to criticism as the Himmaleh mountains. Its tone is of such unrelaxed fibre, that even at this late day, unworn by time, it wears the English and the Sanscrit dress indifferently, and its fixed sentences keep up their distant fires still like the stars, by whose dissipated rays this lower world is illumined. The whole book by noble gestures and inclinations renders many words unnecessary. (Week 149)

그 법전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진실을 내포하고 있으며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깊고 가장 지속적인 것”(150)을 말하고 있다. 써로우는 그것을 평가할 하늘이 있는 한 중요한 위치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힌두 경전들을 써로우가 추구하는 “순수 지성”(pure

intellectuality, *Week* 137), “청정함을 위한 지혜”(wisdom for purity, *Week* 139)를 의미한다. 즉 자신의 영혼(atman)과 우주적인 영혼(Brahman)과의 관계를 밝혀주고 합일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한다.

5. 결론

지금까지 초절주의와 씨로우가 읽은 힌두 경전들을 살펴보았다. 초절주의에 힌두사상의 영향이 있어서 초절주의자인 씨로우는 자연스럽게 힌두경전에 심취하게 된다. 그래서 씨로우는 힌두사상을 자신의 삶에 적용시켜 초월적인 삶을 산다. 그가 읽은 많은 힌두 경전중에서 「바가바드 기타」 「마누의 법전」은 그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요가경(Yoga Sutra)인 「바가바드 기타」의 영향으로 씨로우는 요기로서의 삶을 살려했다. 그리고 그의 삶과 작품속에 요가사상이 반영되어 있다. 씨로우는 힌구 경전들을 재료로 하여 ‘요기의 삶’이라는 예술품을 훌륭하게 창조해 낸 셈이었다.

참고 문헌

A. Primary Sources

- Thoreau, Henry David. *The Writings of Henry D. Thoreau. Journal, Volume 1: 1837-1844*. Ed. Elizabeth Hall Witherell, et al. Princeton: Princeton UP, 1981.
- _____. *Volume 2: 1842-1848*. Eds. Robert Sattelmeyer. Princeton: Princeton UP, 1984.
- _____. *Volume 3: 1848-1851*. Eds. Robert Sattelmeyer, et al. Princeton: Princeton UP, 1990.
- _____. *Volume 4: 1851-1852*. Eds. Leonard N. Neufeldt, et al. Princeton: Princeton UP, 1992.
- _____. *Volume 5: 1852-1853*. Ed. Patrick F. O'Connell. Princeton: Princeton UP, 1997.
- _____. *Walden*. Ed. J. Lyndon Shanley. Princeton: Princeton UP, 1971.
- _____. *The Annotated Walden*, ed. Philip Van Doren Stern. New York: Clarkson N. Potter, 1970.
- _____. *A Week on the Concord and Merrimack Rivers*. Eds. Carl F. Hovde, et al. Princeton: Princeton UP, 1980.
- _____. *Letters to Various Persons*. Ed. R. W. Emerson. Boston: Ticknor and Fields, 1865.
- _____. *Walking*. Concord: Applewood Books, 1996.

B. Secondary Sources

- Anderson, Charles R. *The Magic Circle of Walden*.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8.
- Basham, A. L. *The Wonder That Was India. Calcutta*: Rupa, 1996.
- Boller, Paul F. Jr. *American Transcendentalism, 1830-1860: An Intellectual Inquiry*. New York: G. P. Putnam's Sons, 1974.
- Buhler, G. trans. *The Law of Manu*. Ed. F. Max Muller. Oxford: Claredon, 1986
- Cameron, Kenneth Walter. *The Transcendentalists and Minerva*. Vol 2. Hartford: Transcendental Books, 1958.
- _____. *Companion to Thoreau's Correspondence*. Hartford: Transcendental Books, 1964.
- Canby, Henry Seidel. *Thoreau*. Boston: Houghton, 1939.

- Christy, Arthur, ed. *The Transmigration of the Seven Brahmins*. Trans. Henry D. Thoreau. New York: William Edwin Rudge, 1931.
- Emerson, R. W. *Emerson in His Journals*. Ed. Joel Porte. Cambridge, Mass.: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P, 1982.
- _____. *Selections from Ralph Waldo Emerson*. ed. Stephen E. Whicher. Boston: Houghton Mifflin, 1960.
- Fields, Rick. *How the Swans Came to the Lake* Boston: Shambhala, 1981.
- Harding, Walter and Michael Meyer. *The Days of Henry Thoreau*. New York: Alfred A. Knopf, 1967.
- Harris, Joel Chandler. "Philosophy of the Bhagavad Gita." *Concord Lecture on Philosophy*. Cambridge, MA.: Moses King, 1883. 112-14.
- Hoch, David G. "Ex Oriente Lux: Thoreau's Allusions to the Emblem of the Oriental Translation Fund and a Bibliography of the Fund's Publications through 1854." *The Serif*. 9.1(spring 1972): 25-30.
- Horton, Rod W. and Herbert W. Edwards. *Backgrounds of American Literary Thought*. Eaglewood Cliffs: Prentice, 1974.
- Jeswine, Miriam Alice. "Henry David Thoreau: Apprentice to the Hindu Sages." Diss. U of Oregon, 1971.
- Miller, Barbara Stoler. "Why did Henry David Thoreau take the Bhagavad-Gita to Walden Pond?" *Parabola*, 12 (1986): 58-63.
- Mott, Wesley T., ed. *Encyclopedia of Transcendentalism*. Westport, : Greenwood P, 1996.
- Mueller, Roger C. "Transcendental Periodicals and the Orient." *The Minor and Later Transcendentalists a Symposium*. Ed. Edwin Gittleman. Hartford: Transcendental books, 1969. 52-57.
- Nakamura, Hajine. "The Idea of Nature, East and West." *The Great Ideas Today 1980*. *Encyclopedia Britannica*, 1980. 234-304.
- Nikhilananda, Swami, trans. *The BHAGAVAD GITA*. New York: Ramakrishna Vivekananda Center, 1978.
- Paul, Sherman. *The Shores of America: Thoreau's Inward Exploration*. Urbana: U of Illinois P, 1958.

- Pillai, A. K. B. *Transcendental Self*. Lanham, NY: UP of America, 1985.
- Raghavan, Ellen M. and Barret Wood. *Thoreau's Hindu Quotations in A Week*. *American Lit.*, LI (March, 1979): 94-100.
- Sharma, Mohan Lal. "Cholmondeley's Gift for Thoreau: An Indian Pearl to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the Ohio Folklore Society* 3.2 (1968): 61-89.
- Smith, David C. "Walking as Spiritual Discipline: Henry Thoreau and the Inward Journey." *Soundings* 74.1-2 (Spring/Summer 1991): 129-40.
- Spiller, Robert E. *The Cycle of American Literature*. New York: Macmillan, 1955.
- Stein, William Bysshe. "A Bibliography of Hindu and Buddhist Literature available to Thoreau through 1854." *ESQ* 47 (1967): 52-56.
- _____. "Itinerary of Thoreau's Passage to India." Unpublished. Manuscript. xv.
- Tylor, Walter Fuller. *A History of American Letters*. Boston: American Book Company, 1936.
- Webster, Merriam. *Encyclopedia of Literature*. Springfield, MA.: Merriam Webster, 1995.
- 가아더, 요슈타인. 『소피의 세계』. 장영은역. 서울: 현암사, 1996.
- 민석홍, 나종일. 『서양 문화사』. 서울: 서울 대학교, 1991.